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1. 출장목적

- 2017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연구위원	타쉬켄트 우즈베키스탄	2016. 3. 22~26 (3박 5일)
이윤정 연구원		

3. 주요 내용

- 2017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를 통한 세부 분야 수요 분석
- 우즈베키스탄 일반 현황, 요청한 주제에 대한 현황, 원조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여건 파악
- KAPEX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 방식, 사업 범위에 대한 안내

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

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 및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 중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서 19%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있어 농업이 매우 중요한 부문임. 목화의 경우, 재배면적이 크고 강제노동 등의 국제적인 비판이 있어 면화 재배를 줄이고(10만ha 감소시킬 예정), 과일 채소 등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현재 대사관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사업 진행시 무역균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확대를 도우려고 하고 있으며, 과일가공산업 등 식품산업이 유망한 품목임.
 - KAPEX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델(체리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은 좋은 방법인 것으로 사료됨. 현재 검역 및 자동화된 선별, 포장 등이 조금씩 해결되어가고 있으며, 최첨단 기계 설치, 자동 포장, 저온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체리농업이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산물을 집하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형 체리농장 등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미약한 시점임. 또한 체리 농업의 경우,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실제로 작년의 경우, 냉해로 인해 수확률이 40~50% 정도 급감하여 실제 물동량 확보가 어려웠음.
 - 자동화 선별 및 포장의 경우, 나보이경제특구에 관련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음. 타쉬켄트 주변에도 과일가공회사인 Golden-Drive Fruits 가 1,700백만불 투자하여 크기, 색, 병충해 스캔 등을 할 수 있는 선별시스템과 큰 규모의 저온창고 시설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체리 수확기 한달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음. 저온창고의 경우 사과, 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저장하는 등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범온실사업 진행 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원예기술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역량개발이 중시되어야 함. 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온실사업의 경우, 보고 배우기에는 좋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상품성이 있는 체리나 멜론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일부 과일의 경우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농업분야 협력이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문이기 때문에 KAPEX나 KSP

사업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실질적으로 무상, 유상, 기업투자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정책협의 및 연수 진행시 협력(비자발급 문제, 현지워크숍 진행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공무원 초청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



<사진 1.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나. KOPI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약을 위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 과채산업 분야 중 체리 산업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유망산업임. 또한 기진출한 기업들과 가치사슬적 분석하여 실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체리의 경우, 종자 및 품목이 다양하며 선별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종자가 달라도 규격이 같으면 한 패키지로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품질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음. 지역별로 상이한 종자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품화시킬 수 있는 종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체리는 1달 동안의 수확기간이 끝나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원예를 고려해 보아야 함. 또한 체리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위하여 주산단지 분석, 주산단지 내 품종 분포, 품질 분포, 면적, 생산량, 연령, 수량 등 분석이 필요함. 주산단지를 조성하면 매달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음. 또한 체리나무가 성장할 수록 수확이 어려워지며, 당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체리나무의 소형화 과정이 필요함. Y자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접목이 필요함. 과일재배를 위해서는 품종개량 등이 필요하고 기술협력 ODA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과일주스원액 등 농산물가공산업도 주목할 수 있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즈베크이 식품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사업 진행 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

- 우즈베크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외교부 등 공문 필요함. 위임전결기준이 없어서 긴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에 따라 민간업체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음.



<사진 2. KOPI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방문>

다. Research-Scientific Institute of Horticulture, Viticulture and Winemaking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Research-Scientific Institute of Horticulture, Viticulture and Winemaking 소개
 - 농수자원부 산하의 농업과학 기술센터 산하 16개의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과채류의 품목에 관한 연구와 관련 기술을 실제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음. 본 연구소에는 4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으며, 9명 이상의 박사급 연구원, 20명 이상의 주니어급 연구원이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13개의 주 중에서 12개의 주에 연구소 분원이 있으며, 각 지역 연구소에서는 지리학적인 특징과 기후에 맞는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음.
- KAPEX 주제 관련 논의 진행
 - 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작목이 과일류, 견과류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와 사업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의 품목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특히 품목의 품종별 활용도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함.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과일원예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한 것을 고려하여 과일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수정된 사업제안서에는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원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우즈베키스탄 간 농업협력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를 서로 협의해야 함.
 - 구체적인 주제가 선정되어야 하며, 결과물을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진 3. Research-Scientific Institute of Horticulture, Viticulture and Winemaking 방문>

라. USAID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USAID의 경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리산업의 생산, 유통 및 수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virus-free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체리 생산의 경우, 큰 규모의 농가가 없어서 판매 및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가들이 생산된 체리의 정확한 품목의 이름 (Scientific name)이 아닌 로컬네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 라벨링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우즈베키스탄 체리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품질(당도, 색, 모양 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기존 체리 품목을 당도, 색, 모양 등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선호하는 체리를 선별 및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맛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 방법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선호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장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 현지연수 및 현지워크숍에서 USAID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워크숍의 경우 USAI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진 4. USAID 방문>

마.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약을 위한 논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과일가공산업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이 높음.
 - 한국으로 우즈베키스탄 과일 및 과일가공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검역기준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특히나 선별 및 포장 등의 부문에서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ODA 사업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우즈베키스탄의 “Uzfoodindustry”라는 공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경제부가

카운터파트가 되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컨설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3.22 (화)	인 천 (15:30)	타쉬켄트 (19:20)	○ KE 941	○ 출국
2	3.23 (수)	체 재	체 재	○ 한국대사관 면담 (11:00~12:00) - KAPEX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KSP 사업 및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사업 관련 협의 ○ KOPIA (15:00~17:00) - KAPEX 추후 협력방안 논의	○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 관계자 면담 조사
3	3.24 (목)			○ 연구기관 (10:00~12:30) ○ USAID (16:00~17:30) - 과일 Value Chain 프로젝트 관련 인터뷰 진행 -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 관계자 면담 조사 ○ 현장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4	3.25 (금)			○ 경제부 방문 (16:30~18:00)	○ 관계자 면담 조사
4	3.25 (금)	타쉬켄트 (21:20)		○ KE 942	○ 한국으로 출 국
5	3.26 (토)		(+1/07:30)	○ 입 국	○ 귀국